



겨울 한파대비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만전

- 한전·거래소·발전사 등 전력 관련 기관과 겨울철 준비상황 사전점검

전력 당국과 전력 관련 기관은 전력수요가 높아지는 겨울철 기간 동안 수급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방문규 장관)는 이옥헌 전력정책관 주재하에 겨울철 전력 수급관리 준비를 위한 종합 사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 기간('23. 12. 4.~ '24. 2. 29.)에 앞서 전력 관련 기관이 모여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연료수급 계획 등을 공유하고 각 기관의 준비 현황을 발표했다.

올겨울 전력 당국의 수급 관리는 녹록지 않아 보인다. 갑작스러운 북극 한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강수량도 전년보다 많을 것으로 보여 전력 수급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으로 국제 에너지 시장이 불안정해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이옥헌 전력정책관은 급작스러운 한파, 폭설로 인한 태양광 발전 감소 등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연료수급 상황 및 핵심설비 관리 현황 등을 꼼꼼히 살폈다.

전력거래소는 작년보다 많은 공급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며, 한전과 발전사들은 겨울철 전력집중(피크)에 대비해 송배전·발전설비의 사전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취약설비 보강 등 사전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가스공사와 발전사들은 안정적인 연료 수급을 위해 사전에 충분한 물량을 확보해 두었으며, 수급 차질이나 가격 급등 상황에 대비한 공급망 안정화 계획도 정부와 함께 준비하고 있다.

이옥헌 전력정책관은 “전력은 국민 생활과 산업 활동에 필수적인 기간 산업인 만큼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 라고 밝히고, 참여 기관의 책임감 있는 역할을 재차 당부했다. 정부는 이달 중 모든 사전준비를 마치고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전력정책관	책임자	과 장	문양택 (044-203-3880)
	전력산업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손민경 (044-203-3886)

□ **회의목적**

-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기관별 준비상황·대응계획 점검

□ **회의개요**

- 일 시 : ' 23. 11. 15(수) 12:00~13:20
- 장 소 : 전력기반센터 대회의실(2층)
- 참석자
 - 산업부 : 전력정책관(주재), 전력산업정책과장
 - 유관기관 : 전력거래소, 한전, 발전공기업6社, 에공단, 전기안전공사, 가스공사(각 기관 부기관장)

□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2:00~12:03	(03')	• 모두 발언	전력정책관
12:03~13:18	(75')	• 기관별 발표	
		-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전력거래소
		- 송배전설비 안정운영 계획	한전
		- 발전설비 정비일정 및 안정운영 계획	발전사, 한수원
		- 전력수급 안정화 지원 계획	전기안전공사
		- 에너지절약 및 효율화 방안	에너지공단
		- 발전용 연료 수급전망	발전사, 가스공사
		• 토의	참석자 전원
13:18~13:20	(02')	• 마무리 발언	전력정책관